



황혜숙

YWCA 환경사랑실천단 견학을 다녀와서

4월 15일 화요일, 화창한 봄날, 오늘은 'YWCA 환경사랑실천단'에서 견학을 가는 날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되어 소풍을 가는 것처럼 발걸음도 가벼이 집을 나섰다. 나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자부심에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뿌듯한 기분이다.

YWCA에 도착하니 버스가 미리 대기해 있었다. 마음도 즐겁고 버스도 멋지고 버스 운전기사님 고무신 패션은 더욱 멋졌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버스 운전기사님께서 신고 계신 고무신은 군데군데 구멍이 난 흰 고무신이었다. 버스 운전기사의 설명에 의하면 운전하실 때 고무신이 제일 편한데 바퀴가 통하라고 군데군데 구멍을 내었다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산 줄 알았다가 배꼽을 쥐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흰 고무신 구멍으로 군데군데 드러나는 검은 양말, 그 패션너블(?)한 모습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나는 속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의실 옆자리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일행이 한 분 두 분 모이고 10시가 되자 이내 버스는 출발하였다.

먼저 도착한 곳은 스티로폼 재생업체 금성산업(주)이었다. 공장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장 대표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몸에는 전혀 해롭지 않은 냄새이니 안심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공장에는 익히 보아왔던 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내부에는 그 스티로폼들을 고열로 압축한 알갱이를 넣은 포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다. 열기가 풀어져 나오는 기계실로 들어가 압축되어 나오는 스티로폼을 직접 보았다. 기계에서 꾸역꾸역 밀려나오는 압축된 스티로폼은 마치 길거리에서 보곤 하는 길게 튀겨져 나오는 과자처럼 꾸불꾸불하게 생겼는데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했다. 그것을 알갱이로 잘게 부수어 자루에 담아 제2 재생공장으로 납품된다고 했다. 평소에 아파트 쓰레기 수거일이면 상당히 많이 쌓이던 부피가 큰 스티로폼이 환경오염 때문에 태우지도 못할텐데 다 어디로 버려질까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재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장 견학이 끝나자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장단콩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그 유명한 친환경 유기농 풍산지였다. 점심을 그곳에서 먹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유기농으로 재배했다는 콩요리, 나물, 김치 등을 먹었다. 맛있기도 했지만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건강음식이다 보니 한 공기를 다 비웠다.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번

에 간 곳은 (주)신일프레임이라는 회사였는데 그곳에서는 스티로폼 재생업체 금성산업(주)에서 스티로폼로 재생한 알갱이들을 가져다가 액자 틀을 찍어내고 있었다.

알갱이들이 고열로 인해 가래떡이 되어 기계를 빠져 나와 물속을 지나 압축기 틀을 거치고 색깔을 입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액자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니 얼마나 신기하던지, 재질을 손으로 만져보니 우리집 아파트 창문틀도 그렇고 마루바닥 재질도 이 재질인 것 같았다. 가끔 희석한 락스로 닦으면 깨끗해지던 마루가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재질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 제품들은 해외로 수출되어 외화도 벌어들인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친환경 제품에 상당한 관심과 성과가 있는 것 같아 일면 흐뭇하기도 하였다. 견학을 마치고 회사 사장님께서서는 우리 일행에게 100개의 액자를 선물하셨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하나씩 선물 받을 수 있었다.

집에 와서 나는 "액자 이뿌지롱..."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에게 견학 이야기를 자랑삼아 들려주었다. 남편도 YWCA 환경사랑실천단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대견해하는 표정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행사를 주최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도 그날 너무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다.

